

장예솔, 세계 女핀수영 한국 첫 金

〈광주시체육회〉

표면 100m·50m선 한국新

광주시체육회의 장예솔(27)이 한국 여자 핀수영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예솔은 표면 100m에서 한국 최초로 세계 정상에 올랐고, 50m에서는 한국신기록을 다시 쓰며 2관왕에 올랐다.

장예솔은 19일 중국 옌타이에서 열린 '제18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여자 표면 50m에서 17초25로 가장 빨리 터치패드를 찍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제26회 중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17초33보다 0.08초 빠른 기록이다.

장예솔은 앞서 17일 열린 표면 100m에서 38초96를 기록, 한국 여자 핀수영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김가인(경북도청)은 표면 50m와 100m에서 각각 17초71, 39초36으로 장예솔 뒤를 이어 골인,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한국은 표면 여자 단거리(50m·100m) 종목에서 사상대 가장 높은 두 곳을 모두 차지했다.

장예솔은 앞서 지난해 11월 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며 아시아 1인자로 등극했다. 아시아선수권에서 장예솔은 여자부 표면 50m에서 17초52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표면 100m에서도 41초9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계영 800m에서는 전윤진·권다솜·김보경과 조를 이뤄 6분 13초98로 우승을 차지, 3관왕에 올랐다.

'한국 핀수영의 간판' 이관호(강릉시청)는 2009년 잠영 400m 이회원 이후 역대 두 번째 남자부 금메달을 한국에 안겨 남녀부에서 나란히 패기가 나왔다.

이관호는 남자 표면 100m에서 35초35만에 터치패드를 찍어 1위에 올랐다. 자신의 한국 신기록인 35초17에



지난 17일 중국 옌타이에서 열린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여자 표면 100m에서 우승한 장예솔(왼쪽)과 남자부 표면 100m 우승자 이관호.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제공>

못 미쳤지만 2위 알렉세이 카잔스토프(러시아·35초38)와 3위 말테 슈트르글리(독일·35초48)를 제치기에 충분했다. 핀수영은 돌고래 꼬리처럼 생긴 모노핀이나 오리발 같은 바이핀을 신고 수영장에서 규정한 거리를 누가 빨리 헤엄치는지 경쟁하는 종목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군청 박경두, 펜싱 세계선수권 단체 銀

해남군청의 박경두 등 한국 펜싱 남자 에페 대표팀이 2년 연속 세계선수권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경두·정승화(부산시청)·권영준(익산시청)·나종관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세계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최종 2위에 올랐다.

32강에서 멕시코를 45-30으로 완파한 한국은 16강에서 카자흐스탄과 접전을 벌여 45-44 한 점 차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8강에서 헝가리를 25-24로 물리치고, 4강에서 스위스를 45-37로 따돌려 지난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결승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 일전에서 우크라이나에 24-34로 크게 지고 말았다.

한국은 박경두·권영준·박상영·정진선이 출전한

2014년 러시아 카잔 대회 결승에서 프랑스에 39-45로 져 처음으로 은메달을 따낸 바 있다. 앞서 한국은 1994년 그리스 대회와 2002년 포르투갈 대회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가져왔다.

여자부 단체전에서는 광주 서구청의 최은숙·강영미와 계룡시청의 최인정·신아람이 출전에 최종 10위를 차지했다.

16강 프랑스전에서 32-44로 진 한국은 16강에서 탈락한 8개 팀이 맞붙는 9위 결정전 토너먼트에서 캐나다를 45-37, 독일을 28-23으로 제압했으나 에스토니아에 32-41로 패해 9위 자리를 내줬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에페 개인전 정승화의 동메달을 비롯해 남자 에페에서만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고육상경기연맹, 한국新 김국영 2000만원 지원



광주U대회 육상 남자 100m에서 10초16의 한국신기록을 세운 광주시청의 김국영(24)이 중고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훈련지원금 2000만원을 받았다.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은 지난 17일 "정한 회장이 이날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김국영에게 2000만원의 훈련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국영은 2010년 6월7일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초23의 기록을 세우며 당시 대한육상경기연맹이 내건 특별 포상금 1억원을 받았다. 이번에는 연맹 규정에 따라 한국 신기록 달성 포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중고육상경기연맹이 추가로 훈련 지원금을 마련했다.

중고육상경기연맹은 "정한 회장이 사비로 훈련 지원금을 마련해 전달했다"며 "김국영이 또 다른 한국신기록을 작성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달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전했다. 정한 회장은 "김국영 선수의 한국신기록 달성을 축하한다"며 "육상 꿈나무들이 김국영의 뒤를 이어 더 많은 기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철한 통산 1000승... 한국 프로바둑 7번째



최철한 9단이 입단 18년 2개월 만에 통산 1000승을 달성했다.

최철한 9단은 지난 17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7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예선 5회전에서 국내 여자랭킹 1위 최정 5단을 상대로 286수 만에 흑 1 집반승을 거뒀다.

1997년 입단한 최철한 9단은 프로 첫 무대인 제5회 한국통신배 배달왕기전 예선에서 나중훈 4단(당시)을 꺾고 데뷔 첫 승을 올렸다. 이날 기준으로 1000승 2무 43패, 승률 69.54%를 기록 중이다.

통산 1000승은 조훈현 9단(1906승), 이창호 9단(1692승), 서봉수 9단(1581승), 유창혁 9단(1217승), 이세돌 9단(1140승), 서승욱 9단(1032승)에 이어 최철한 9단이 7번째다.

최철한 9단은 "영광스런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과 내조해준 아내 생각이 많이 났다"며 "앞으로 1500승까지 달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손연재니까”

국가대표 선발전 5위 불구 세계선수권 추천...티켓 확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3관왕을 차지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르며 오는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출전 티켓을 따냈다.

손연재는 19일 서울 태릉선수촌 필승주체육관에서 열린 리듬체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후프(17.650점)-볼(18.150점)-곤봉(17.900점)-리본(17.150점) 4종목 합계 70.85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다에(21·세종대)로 63.050점, 3위는 천송이(18·세종고)로 62.600점을 기록했다.

손연재는 지난 4월 18~19일 이틀간 펼쳐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발목 부상으로 둘째 날 경기를 기권한 탓에 1차 선발전 평균 점수는 36.050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손연재는 2차 선발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음에도 1, 2차 선발전 합계 점수는 106,900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한체조협회는 2차 선발전이 끝난 직후 회의를 열고 메달을 딸 확률이 있는 우수 선수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손연재에게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추가로 줬다.

9월 슈투트가르트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걸린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1차(50%)와 2차(50%) 성적을 합산해 대표 선수 3명을 선발했다. 이에 따라 1, 2차 합계 1위에 오른 천송이(125.225점), 2위를 차지한 이다에(124.125점)에 이어 협회 추천을 받은 손연재가 마지막 출전권을 얻었다.

대한체조협회는 제천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6월 10~13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7월 3~14일), 슈투트가르트 세계선수권대회(9월 7~13일)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두 차례로 나눠 치렀다.

아시아선수권, 유니버시아드에서 연이어 정상에 오르며 자신감을 더한 손연재는 이번 선발전에서도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다만, 뻣뻣한 대회 일정에 따른 체력적 부담과 여전히 좋지 않은 발목 부상 때문인지 일부 프로그램의 난도를 낮췄고, 몸놀림도 다소 무거워 보였다. 마지막 리본 종목에서는 녹록한 날씨 탓인지 리본이 다리에 감겨 고전하기도 했다.

손연재는 21일 전지훈련지인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 소피아 월드컵(8월 14~16일), 카잔 월드컵(8월 21~23일)을 준비할 예정이다.

손연재는 두 차례의 월드컵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뒤 9월 슈투트가르트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인지 “LPGA 정식 출전 내년부터”

학업·국내 일정 등 감안해 결정

보성 특광중·함평골프고 출신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내년 시즌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정식 진출하기로 했다.

전인지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시즌부터 정식 LPGA 멤버로 투어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인지는 내년 공식적으로 LPGA 신인 자격을 취득한다.

전인지는 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LPGA 회원 자격을 얻었다. 당장 다음 주 LPGA 투어 대회부터 회원으로서 출전할 수도 있었지만, 회원 가입 시기를 고민하던 전인지는 결국 내년부터 투기로 뛰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전인지 측은 "LPGA 행을 결정하려면 미국시각으로 17일 오후 5시까지 LPGA 본부에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내년 초부터 LPGA에 진출하려면 오는 11월23일까지 통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인지는 언제 LPGA 투어에 정식 진출하느냐에 관계없이 올해 남은 LPGA 메이저 대회에는 세계랭킹 상위(10위) 자격으로 자격 출전이 확정된 상태다. 다른 대회에도 이미 초청을 받아 대부분 참가할 수 있다. 앞서 올해 일본여자골프투어의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컴도 제패한 전인지는 남은 일본

메이저대회 3개에도 자격 출전권을 확보해 놓았다.

전인지는 "앞으로의 대회 참가 일정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학생 신분임을 고려해 학업과 기타 국내 경기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귀국하자마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BMW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한 전인지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19일 최종 라운드에 기권했다.

전인지는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진단서와 함께 기권 의사를 대회 경기위원회에 제출했다. 경기 중에 발이 끌려 넘어지는가 하면 저절로 눈꺼풀이 내려앉았다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전인지는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심한 현기증까지 느껴져 결국 출전을 포기했다. 1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로 버틴 전인지는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저력을 보였지만 3라운드에서는 4오버파로 무너졌다.

전인지는 20일 예정된 방송 출연과 각종 행사 참석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휴식으로 취할 예정이다. 전인지는 23일부터 열리는 K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출전한 뒤 LPGA 투어 시즌 내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다. /*연합뉴스